

2023 수능 · 2024 6/9 모평 · 중요 평가원 선별 · 중요 EBS 선별 독해 모의고사

키스 ES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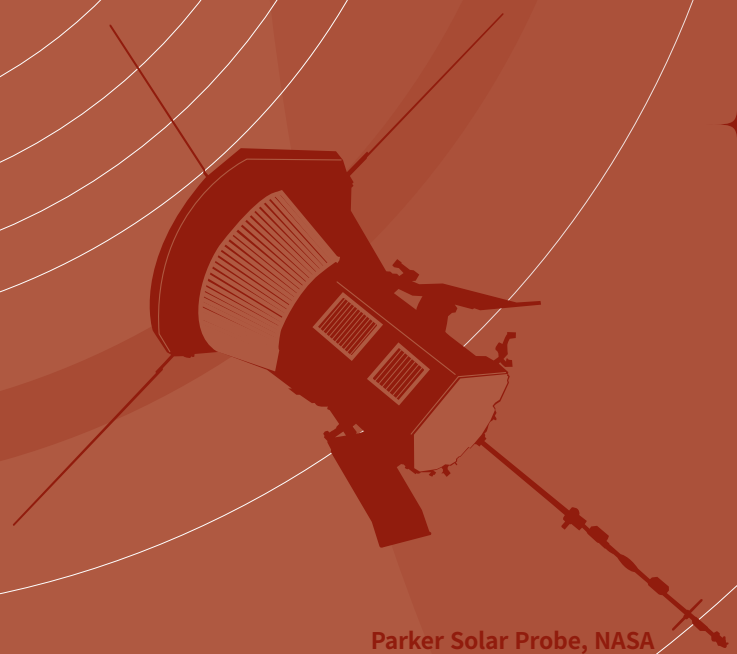
문제편



The Sun is the largest object in our solar system. The Sun's volume would need 1.3 million Earths to fill it. Its gravity holds the solar system together, keeping everything from the biggest planets to the smallest bits of debris in orbit around it. The hottest part of the Sun is its core, where temperatures top 27 million degrees Fahrenheit (15 million degrees Celsius). The Sun's activity, from its powerful eruptions to the steady stream of charged particles it sends out, influences the nature of space throughout the solar system.

SOURCE, NASA

Table of Contents



INTRO

2 - 13

WEEK 1 대의과약

14 - 31

WEEK 2 준킬러(어법, 어휘, 요약, 2장문)

32 - 53

WEEK 3 빈칸

54 - 71

WEEK 4 간접쓰기

72 - 89

WEEK 5 EBS 연계 독해 모의고사 1회

90 - 101

WEEK 6 EBS 연계 독해 모의고사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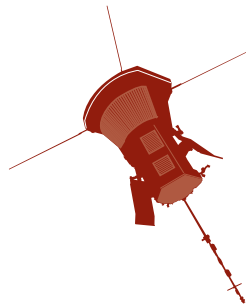
102 - 113

수능영어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믿기에, 이를 가르칩니다.
꼭 1등급이 나와 수시, 정시에서 큰 우위를 가지길 바라며

Hi Guys!

선티입니다.

이제는 수험생의 영어 파이널 ‘필수’가 된 2024 KISS ESSENCE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올해 6평 영어 1등급 비율은 7.62%였고, 9평 직후 이 글을 적는 시점 9평 영어는 6평 영어보다 1등급 비율이 많이 낮을 거라 예상됩니다. 국어 수학에서 소위 ‘킬러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영어까지 마냥 쉽게 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나, 영어는 수능에서도 이정도 난이도를(비율로는 7% 내외)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능날 1등급 비율 7% 영어는, 쉬운 시험지가 아닙니다. 6, 9평에 나왔으면 각각 5, 6%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제 수능날 영어가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무도 모르나, 9평처럼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험생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평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좌절하고 어떡하지 불안할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 달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렘설렘해왔기에 떨어진 영어 ‘감’을 다시 따기 충분한 기간입니다. 단, ‘매일’ ‘꾸준히’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해야 합니다. 강의 듣고 복습하면서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면서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말이 쉽지 이를 두 달 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면 9평보다 수능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두 달이 남은 이 시점, 간접연계 50% 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material은 등급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작년 수능, 올해 6/9 평가원
- ② 올해 6/9 평가원과 연관된 최근 평가원 기출
- ③ 올해 6/9 평가원과 연관된 중요 소재/논리 EBS
- ④ 올해 6/9 평가원과 구성/난이도를 맞춘 실전 모의고사

①번. 두말 할 필요 없이, 올해 수능영어를 낼 때 출제위원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3개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수능영어만 10수 이상 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저는 매년 ‘아.. 또 작년 수능에 있는 이 단어, 표현, 로직 개념 그대로 나왔네, 올해 6/9평에 쓰인 순/삽 근거나 어휘, 구문, 로직 그대로 나왔네’ 등을 적잖게 느낍니다. 소위 ‘데자뷰’를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KISS ESSENCE의 경우 6평에 눈에 띄는 고난도 어휘였던 plastic에 주목했고 이것이 그대로 수능 36번에 각주 없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제발제발제발, 파이널에는 ‘양’적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3개의 시험지 ‘단어, 해석, 논리’를 내가 씹어 먹고 또 씹어 먹어 ‘완벽히’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널이라고, 또 수능영어 어렵게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 풀고 채점하기’만 하시면, 평생 2, 3등급 위로 못 올라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세 개 시험지는 적어도, 3회독 이상 하도록 합시다.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but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B) are plastic(B) and can be modified(B)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B).

* anthropologist: 인류학자 ** stimuli: 자극 *** cognitive: 인지적인

하지만 감정 상태 그 자체는 문화 전반에 걸쳐 지극히 불변할 가능성이 있다. /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모음을 생각할 수 있다 / 진화에 의해 형성되어 두뇌에서 실행되는 / 그러나 그런 감정 상태와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 상태 간의 연관성은 / 매우 바뀌기 쉬워,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SHEANT 다시 한번 However. 두번이나 역접 나오는 지문은 기본적으로 극혐 지문인데.. 이 지문이 그렇다. 앞뒤 AB의 대상/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립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감정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invariant, A), 보편적인(universal) 것이다.

SHEANT 마지막 문장 but 앞뒤 대립성도 너무 중요하다. 지문이 헛갈리고 어렵다면 결국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일 때가 많다. 감정은 보편적이거나, 감정과 우리의 자극, 인지 상태 사이의 연결성은 문화 맥락에 따라 바뀌기 쉽고 수정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A: 감정, 갈음 vs. B: 감정 이해, 감정 인지, 문화에 따라 다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 plastic은 눈에 띄는 중요 AB 단어이니 flexible(유연한), elastic(탄력적인)과 유의어로 챙기는 게 좋겠다!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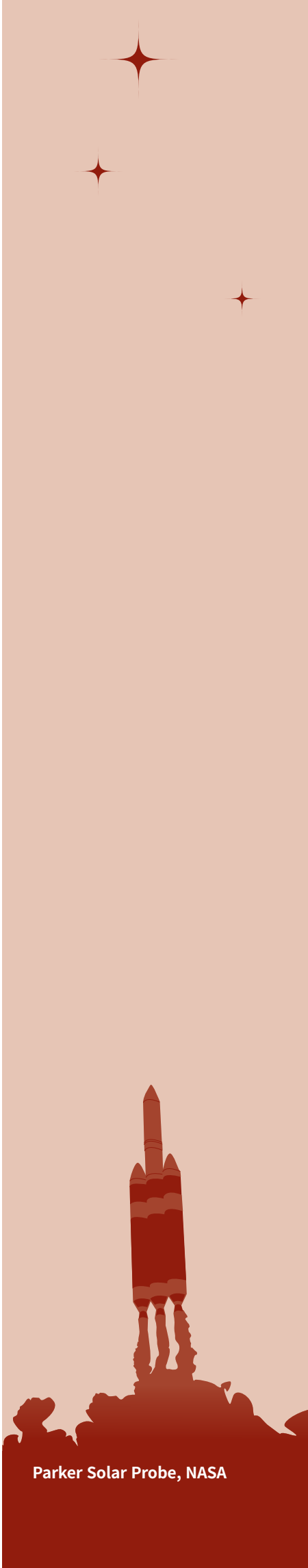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 exhibits a kind of flexibility that evolutionary biologists call adaptive plasticity.

- (A) That's a clever trick, because producing spines and a helmet is costly, in terms of energy, and conserving energy is essential for an organism's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The water flea only expends the energy needed to produce spines and a helmet when it needs to.
- (B) If the baby water flea is developing into an adult in water that includes the chemical signatures of creatures that prey on water fleas, it develops a helmet and spines to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s. If the water around it doesn't include the chemical signatures of predators, the water flea doesn't develop these protective devices.
- (C) So it may well be that this plasticity is an adaptation: a trait that came to exist in a species because it contributed to reproductive fitness. There are many cases, across many species, of adaptive plasticity. Plasticity is conducive to fitness if there is sufficient variation in the environment.

* spine: 가시 돌기 ** conducive: 도움되는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②번. 이렇게 씹어 먹어야 할 두번째로 중요한 콘텐츠는, 작년 수능 및 올해 6, 9평과 엮어볼 수 있는 최중요 최근 평가원 기출입니다. 이 KISS ESSENCE에는, 작수 및 올해 6/9평과 구문/논리/소재 면에서 중요한 연관이 있는 최근, 최중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주간 KISS에서 선별). 분명 평가원이 ‘최근’ 좋아하는 논리/ 소재 지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서 혹 아직까지도 제대로 최근 중요한 평가원 기출을 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보고 가야 하고, 이미 이 기출들을 본 학생이라도, 다시 한번 내가 단어, 해석, 논리에서 막힘이 없는가 완벽히 소화시켜야 합니다. 이 지문들 또한 ‘스스로’ 직독직해를 3회독은 하셔야 합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③번. 또한, 간접연계 50%가 유지되는 만큼, 학생들은 EBS를 아예 안 보고 가기에는 ‘찝찝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EBS가 직접적으로 critical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년 EBS 연계교재에는 평가원의 시선에서 너무나 좋은 어휘/논리/소재를 가진 지문들이 많습니다. 평가원 기출을 충분히 학습한 후 어렵고 중요한 지문을 봐야 한다면 ‘그래도’ 익숙한 소재가 보일 수 있는 EBS 지문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이에 따라 KISS ESSENCE에는, 주간 KISS에 한정된 지문 개수로 인해 수록 하지 못해 아쉬웠던 평가원스러운 EBS 지문들을(영독, 완성 위주) 선별 및 변형하고, 새로운 비연계 지문들을 더하여 2회분의 독해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마스터피스 모의고사와 함께, 가장 평가원에 근접한 지문들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수능장에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수능날 ‘어? 어휘, 구문, 논리, 소재 익숙한데?’에 일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④번. 마스터피스 시즌1은 이번에도 지문, 문제 좋은 건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평이 있었으나, 9월 평가원을 까보니 마피 점수가 딱 9월 평가원 점수였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9월 평가원을 보고 난이도를 더 쉽게 조절할까 했으나, 마스터피스 시즌2의 난이도는 시즌1과 유사하게 유지하여 출시합니다. 다만 정답/오답 근거의 ‘명확함’은 더욱 살리겠습니다. 듣기 3번 ‘요지’ 유형 반영, 30번 어휘 ‘밀줄’로 유지 등 9평의 소소한 변화들도 담아 출시합니다. 수능 전 실전 환경에서 소중하게 풀어주세요. 모의고사 또한, 풀고 채점하고 버리지 마시고, 적어도 주요 유형은 지문의 직독직해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EBS 직접연계가 있었던 2021학년도까지의 KISS ESSENCE는 최종요 150~170개 지문을 ‘EBS 선별’로 구성했습니다. 당시에는 EBS 150개 지문의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어 마지막 ‘영어력’을 기르고, 이 150개 지문 중 5개 이상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보여 소위 ‘날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막판 2등급 향상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영어+논리력 향상’ 및 ‘내신 특성 버프’를 통해 막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올해도 KISS ESSENCE의 가장 중요한 170개 내외 지문으로(모의고사 제외)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어 마지막 ‘영어력+논리력’을 향상시킨다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EBS 직접연계가 사라져 dramatic한 막판 상승은 어려울 수 있으나, 9평 등급에서 ‘1등급 상승’은 누구나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포텐이 터지는 누군가는 2등급도!). 작년 수능, 올해 6/9평, 최종요 평가원 및 EBS의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읍시다. 하나의 지문 ‘직독직해’를 우직하게 여러 번 합시다. 향상된 영어력은 물론, 수능에서 단어/해석/논리/소재 측면의 ‘데자뷰’ 현상을 통해, 학생에 따라 막판 1~2등급 향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잡다한 콘텐츠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담은 ‘에센스’를 ‘제대로’ 합시다. 강의를 통해 각 유형별 접근법 총정리, 교재에는 지면 부족으로 적지 못한 어휘/구문/논리/소재 측면에서 올해 수능 예측 포인트까지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진인사대천명.

선티 드림.



Shean.T

각 Day를 진행하는 데 있어, 누군가는 1시간도 안 걸릴 것이고,

누군가는 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당연한 것이다.

1등급 친구는 내가 막히는 어휘나 해석이 별로 없으니 몇 개만 체크하고

픽업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등급이 낮을수록 단어 해석 하나하나가 퍽퍽 막힌다.

이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공부하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1등급 친구는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이 기간을 보낸 것이니까.

그러니 등급이 낮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 시간을 꼭 투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절대 2, 3등급 위로 꺾충 오르지 않을 것이다.

믿고 꾸준히 해보자. 영어 지문을 보는 질이 달라질 것이다.

영어는 우직한 노력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친다.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Contents

Week 1

- 작수 및 올해 6, 9평 대의파악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2

- 작수 및 올해 6, 9평 어법, 어휘, 요약, 2장문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3

- 작수 및 올해 6, 9평 빈칸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4

- 작수 및 올해 6, 9평 흐름/순서/문삽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Week 5

- 올해 최중요 EBS 및 비연계로 구성된 독해모의고사
(주간 KISS EBS 지문과 중복 X)

Week 6

- 올해 최중요 EBS 및 비연계로 구성된 독해모의고사
(주간 KISS EBS 지문과 중복 X)

Study Guide

* 기본적으로 '풀채단해논'이 모든 영어 학습의 핵심이다. 풀고, 채점하고, 단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해석 어려운 문장은 이렇게 해석 되는구나 익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것. 여기서 '풀채'만 해서는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다.

Week 1~4

- 1 풀:** 하루치 문제를 시간 재고 풀다. 보통 대의파악은 1분 30초 ~ 2분, 그 외 어려운 문항은 실력에 따라 2분~2분 30초을 준다.
- * 중요 포인트:** 내가 이미 답을 아는 평가원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찍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오롯이 요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며 내려와야 한다.
- 2 채:** 채점을 한다. 채점 후 틀린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단어/해석/논리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꼭꼭 가진다.
- 3 단:** 해설을 보며 내가 몰랐던 단어/표현을 모두 나만의 단어장에 적으며, 적는 시간 및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철저히 암기한다.
- 4 해:** 문제에 집착 말고, 우선 하나의 지문이 적어도 7, 80%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을 직독직해를 참고하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익히시고, 이 또한 본인만의 해석 노트에 따로 적어 정리하면 좋다.
- 5 논:** KISS Logic 해설을 보면서 내가 반응했어야 할 부분, 여기는 이래서 중요하고 이런 ABPS 논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답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한다. '실전'에서 상세한 KISS Logic 해설처럼 완벽하게 풀 수는 없다. 허나, '평소'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줄 알려고 학습해야, '실전'에서 이게 70% 정도 발휘되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Week 5~6

❶ 풀: 독해 모의고사 1세트를 시간 재고 푼다. 50분이 적당하다.

* **중요 포인트:** 내가 이미 답을 아는 EBS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찍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오롯이 요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며 내려와야 한다.

❷ 채: 채점을 한다. 채점 후 틀린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단어/해석/논리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꼭꼭 가진다.

❸ 단해논의 '방식'은 평가원과 똑같다. 단, 하루에 대략 5문제 씩 평가원처럼 철저히 단해논을 씹어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략 5일 간 독해 모의고사를 풀고 분석한 뒤, 주말에는 마스터피스를 풀고 단해논 분석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 **중요 포인트:** 등급별로 하루치 '단해논'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것이다. '보통' 1등급 친구는 1시간도 안 걸릴 것이고, 2등급 친구들은 1시간 ~ 1시간 반, 3등급 친구들은 1시간 반 ~ 2시간,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더 걸려야 '정상'이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단해논' 파트를 제대로 안 하고 속속 넘어가면, 제대로 된 성적 향상은 힘들다. 하나의 지문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완벽히 소화하고 가자.

* **중요 포인트:** 총 6주 과정으로 구성했지만, 당연히 남은 시간에 따라 2일, 3일씩 묶어서 3주, 2주만에 끝낼 수도 있겠다. 그만큼 하루에 시간을 더 투자하여 '단해논' 파트만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 **중요 포인트:** 에센스를 '제대로' 하는 게 이번 수능영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걸 제대로 한 사람만이 추가적으로 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다. 마스터피스만으로 부족하다면, 에센스를 제대로 끝낸 친구의 경우, 막바지에 기타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이때도 단해논은 꼭 가져가려 하자) 수능 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KISS Logic

AB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수능영어 지문의 핵심 구조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겁니다. B는 필자가 강조,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필자가 '복습'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 그럼 복습이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문에서 '복습이 중요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예습도 중요한데, 복습이 '더' 중요해'라고 비교대조하며 표현해주고, 우리의 목적은 저 AB라는 key message를 찾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경우에는 'A가 문제(P)가 있으니, B가 좋아(해결책이야 S)'라는 것이지만, 한 30% 정도는 S가 없이 대상의 P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하는 게 P이므로, P가 B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AB/PS는

결국 '단어력' 그리고 해석력이 따라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3등급 이하는 AB/PS에 너무 목매기보다(활용은 하려고 하되) 우직하게 단어 외우고, 외운 단어로 지문을 '한국말로 요리조리' 해석하며 '아 해석이 되는구나' 재미를 좀 더 느껴보세요. 그 과정에서 AB/PS가 느껴지면 좋고, 아니더라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AB/PS라는

어떤 '알파벳'에, 그 '기호'에 함몰되지 마세요. 이는 '본질'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은 아 필자가 자신이 강조하는 것(B)을 드러내기 위해 대립항(A)을 세워서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 속에 문제 의식도 섞여 있겠네, 이런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지, 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CE(원인,결과) ME(수단,목적)라는 기호도 쓰고는 했는데, 역시 수능에서의 도구는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혁신이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둘만 기억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둘로 나뉘지나?' '이거 문제인가?' 이 생각만 하며 지문을 읽으세요. 이 대상, 개념을 필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 이를 까는 것이고, 이와 대립되는,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대상, 개념이 나오겠네! Could it be simpler?

KISS Signal

◇ Shean.T's Comment

해당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하면 좋았을 방향, 태도.

◇ 형광펜

AB, PS를 알 수 있기에 반응해야 할 Signal
(순서 및 문삽 문제에서는 반응할 지시어도 포함)

◇ 진한 단어

어휘 정리

◇ 선지

- ① A(not A): A쪽(A의 반대 쪽) 선지.
- ② B(not B): B쪽(B의 반대 쪽) 선지.
- ③ off: 지문의 AB, PS로 grouping되지 않는 헛소리.
- ④ 반: 해당 선지의 '반대 의미'가 정답.
- ⑤ 매: 매력적인 오답(off로 인한).

QnA

◇ 배송 / 결제 / 환불 / 주소변경 /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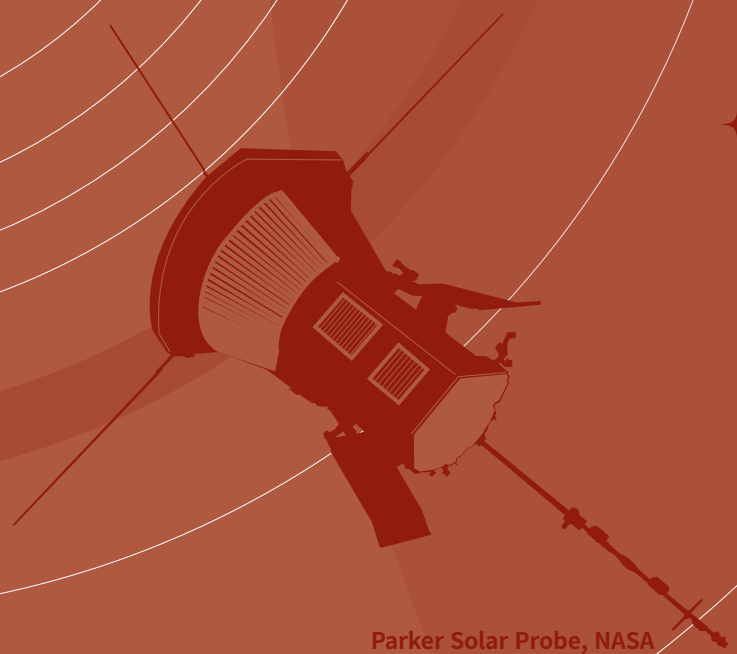
오르비 구매자	070-4353-3537 orbi.cs@move.is
대성 구매자	02-5252-110 help@mimacstudy.com

◇ 학습 질문 ◇

오르비 구매자	오르비 KISS 판매 페이지 하단 댓글
대성 구매자	대성 센터 페이지 QnA 게시판

KISS ESSENCE . WEEK 1

대의과약



Parker Solar Probe, NASA

Secret Paper

Day1~4 '세 문항'의 경우 '작년 수능, 올해 6/9평'인 1~3번에 해당. Day1~4의 4번 문항 22 수능은 추가 주요 문항으로 수록되어 '작년 수능, 올해 6/9평을 묶어본 코멘트'에서는 제외됨.

DAY 1 주장

● 당연히 평가원 지문이기에 ABPS의 관점이 예쁘게 결합되어 있지만, 세 문항 모두 PS 로직의 결이 강했다. 쉬운 주장 지문이라고 대충 읽지 말고 중요한 S 문장을 파악해 '정확하게' S의 키워드를 잡아 선지의 단어와 연결시켜야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겠다. 또한, 소위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답이 나왔던 6/9 모의평가와 달리, 22/23 수능은 지문 중간 쯤에 정답 한국어 선지로 paraphrase되는 문장이 있었다. 주장/요지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할 때가 많긴 하지만 참고용일 뿐, '마지막 부분만 보자'라는 야매를 기대했다가는 수능날 꼬이고 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자.

DAY 2 요지

● 23 수능 요지는 B,S 단일 구조였다. 지문 상단에서 B,S의 키워드를 잡고 뒤에 쪽 역접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내려온 후 지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B,S 키워드를 확정적으로 잡으며 풀었으면 되는 문항이었다. 반면, 올해 6/9 모의평가는 두 지문 모두 지문 하단에 'however'가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이 뒷 부분이 정답 선지와 그대로 연결되는 패턴이었다. 수능에 어떤 구조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떤 구조로 나오든 지문 상단에서 로직 키워드를 확실히 잡은 후(올해 6/9평은 모두 PS 느낌이 강했다), 지문 마지막까지 '역접' 있는지, 문장의 로직 전환되는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DAY 3 주제

● 세 문항 모두 대의파악에서는 고난도로 출제되었다. 대의파악에서도 21, 23, 24는 쉽지 않게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 수능 날 쉽게 읽지 않는다면 세 문항 중 두 문항 정도는 얼른 세모 치고 넘어가는 운영능력 또한 중요하다. 결국 세 문항 모두 어떻게 전반적인 지문 로직을 잡으면서도 '중요한 문장(정답 선지로 paraphrase 문장)'을 확실히 잡으면서 답과 직결시키는가 하는 문제였다. 뻘, 중요한 문장인지 어떻게 알죠? 23 수능의 경우 명확한 역접(in contrast)으로 이를 알려줬다. 주.목.할 점은 올해 6/9 모의평가이다. 두 문항 모두 '결과(consequences, outcome)'가 들어간 선지가 정답이었고, 올해 9평에서는 'in consequence'로 나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를 알려주었다. 6평에서는 결과 연결어가 없이 정답 선지를 결과의 단어로 표현해서 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통' 무엇의 결과, 즉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P'의 인과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6/9평 모두 지문 키워드 A or B의 P!!! 결과를 말하였으니, 수능에도 비슷하게 출제될 수 있겠다.

DAY 4 제목

● 23 수능, 올해 9평은 AB 개념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했다. 둘 다 'B' 키워드를 정확히 잡고 이해하는 게 중요했다. 올해 6평은 소재의 PS를 잡는 게 중요한 문항이었다. 수능 날 둘 중 어느 걸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세 문항 모두 지문 중반/후반 쪽에 '강력한 AB 시그널(부정, 대립어)'이 있었다는 게 포인트. 23 수능은 However였고, 올해 6평은 Yet이었고, 올해 9평은 마지막 문장 rather than이었다. 따라서 어떤 로직으로 어떤 소재로 나오든, 지문 중후반부의 AB 대립/부정 시그널에 주목하면서 해당 문장 기준으로 지문의 핵심 로직을 이해하고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올해 6평과 마찬가지로 선지에서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지문에서 답하는 패턴도 답이 자주되는 편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DAY 5 의미

● 세 문항 모두 밀줄만으로도 꼼꼼하게 파악하면 대략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영어 내공이 있는 친구라면 밀줄의 내용/로직을 천천히 읽고 가능해보고 지문을 들어가도 좋을 것이다. 세 지문 모두 예전에 비해서는 지문의 괴랄함이 조금 줄어들었고, 사실상 '빈칸'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밀줄의 내용/로직을 밀줄 앞뒤 문장에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6/9평의 경우 밀줄이 지문의 마지막에 있었기에 바로 앞 문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3 수능 및 올해 6평은 밀줄이 B 개념이었고, 올해 9평은 A의 P 개념이었다. 둘 중 어느 로직으로 나올지는 모르나, 지문 전반을 대의파악처럼 읽으며 밀줄은 빈칸처럼 로직으로 정의하는 것이(이때 밀줄 앞뒤 문장이 중요) 핵심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DAY 6 최근 평가원 최종요 주제/제목

● 주제 문항(23.9.23)의 경우 올해 6/9평에서도 그랬듯 '결국엔 P'를 물어보는 지문으로 선정하였다. 지문 중간 역접 But를 통해 P가 시작된다는 점도 아주 수능스럽다. 제목 문항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AB가 뚜렷하게 아주 좋은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수능도 베틀을 하자면 명확한 AB일 확률이 높다. '정부 vs. 시민(22.9.24)', '기계와 독립 vs. 기계와 협력(23.6.24)', '같은 vs. 다른(23.9.24)'의 AB는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꼼꼼히 봐두도록 하자. 세 문항 모두 너무나 중요하고 고급스러운 AB 시그널들도 담겨 있기에, 수능에 보일 거라 믿으며 챙겨두도록 하자.

DAY 7 최근 평가원 최종요 밀줄 의미

● AB가 너무 중요해서(주관 vs. 객관) 넣은 23.6.21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항 모두 23 수능 및 올해 6/9평처럼 최대한 일상적인 얘기이면서 밀줄 앞뒤 밀줄의 로직/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올해 6/9평처럼, 일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문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읽히나, 지문의 AB 키워드를 잡지 않고 대충 읽거나, 밀줄 앞뒤 근거 문장을 꼼꼼히 파악하지 못하면 오답 선지를 고를 수 있는 문항들이다. 정확하게 AB 개념을 잡고 이해하여 정답 선지를 고르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KISS Logic in One Shot

Week 1

	1번	2번	3번	4번
DAY 1	A: 직관(intuition) VS. B: 확률(probability)	A: 과도한 특화 (excessive specialization) VS. B: 영역 간 창의성(cross-domain creativity)	A: 편안함(comfortable), 안주 VS. B: 자신감(confident), 도전	A: 소셜 미디어 도구(tools) VS. B: 사업 목표(objective)
DAY 2	B,S: 배송 수단(vehicle) 자전거	A: 현실(real) 세계 VS. B: 가상(virtual) 세계	P: 이민자 동화(assimilation) → S: 정체성 유지	A: 개인 환경 문제/해결 VS. B: 사회 환경 문제/해결
DAY 3	A: 규제(regulation) VS. B: 공개(disclosure), 자율성(autonomy)	A: 수익성(profitability), 전시(exhibition) VS. B: 창고(storeroom)	B: 다수(large) 청취자 보유(retention) → P: 제한된(restricted) 플레이리스트	A: 패러다임 믿음 VS. B: 패러다임 사용
DAY 4	A: 전체(whole), 통합(integrated) VS. B: 분리(separate), 독립(independent)	높은 이동성(hyper-mobility): not only S, but also P	A: 종이 신문, 단명(short-lived), 단절(unconnected) VS. B: 온라인 신문, 지속(lasting), 넓은 맥락(context)	A: 기계, 대량 생산(mass production) VS. B: 대장장이(blacksmith), 맞춤형(customized) 수리
DAY 5	A: 사적인(private) VS. B: 공적인(public)	A: 전체(full), 집합(grouping) VS. B: 분리(split), 일부(한 개)	A: 금도금, 최고 지향, 전문가(specialist) 만족 VS. B: 적당한 좋음, 고객 가치	A: 비전문가(lay people), 현지(local) 지식 VS. B: 전문가(specialist), 과학 지식
DAY 6	A: 이웃 관찰 VS. B: 실험, 경험 결과, 이익(payoff) 정보	A: 공공(public) 정부 서비스 VS. B: 민간(private) 시민 참여	A: 인간 기계 독립(independence) VS. B: 인간 기계 협력(cooperation)	A: 같음, 고정 VS. B: 다름, 변화
DAY 7	A: 취향 수렴(convergence) VS. B: 취향 발산(divergence)	A: 객관(objective), 보편(universal) VS. B: 주관(subjective), 관점(perspective)	A: 대응하는(reactive) 일 VS. B: 창의적인(creative) 일	A: 사건 변동(variation), 예측 불가 VS. B: 사건 고정(fixedness), 예측 가능

Quick Answer

WEEK 1

DAY 1

1	2	3	4
③	④	②	③

DAY 2

1	2	3	4
①	⑤	①	①

DAY 3

1	2	3	4
②	④	⑤	⑤

DAY 4

1	2	3	4
⑤	①	①	①

DAY 5

1	2	3	4
①	③	②	②

DAY 6

1	2	3	4
①	③	①	②

DAY 7

1	2	3	4
①	⑤	②	①

출처 2023.수능.20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t every step in our journey through life we encounter junctions with many different pathways leading into the distance. Each choice involves uncertainty about which path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Trusting our intuition to make the choice often ends up with us making a suboptimal choice.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has proved a potent way of analyzing the paths and finding the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hasn't eliminated risk, but it allows us to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The strategy is to analyze all the possible scenarios that the future holds and then to see what proportion of them lead to success or failure. This gives you a much better map of the future on which to base your decisions about which path to choose.

* junction: 분기점 ** suboptimal: 차선의

- 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②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③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④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해 지름길로 가고자 할 때 신중해야 한다.
- ⑤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NOTE

출처 2024.6.20

2.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Certain hindrances to multifaceted creative activity may lie in premature specialization, i.e.,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of education or to focus on developing one ability too early in life. However, development of creative ability in one domain may enhance effectiveness in other domains that require similar skills, and flexible switching between generality and specificity is helpful to productivity in many domains. Excessive specificity may result in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domain being underestimated and unavailable, which leads to fixedness of thinking, whereas excessive generality causes chaos, vagueness, and shallowness. Both tendencies pose a threat to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skills between domains. What should therefore be optimal for the development of cross-domain creativity is support for young people in taking up creative challenges in a specific domain and coupling it with encouragement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in, as well as from, other domains, disciplines, and tasks.

- ①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②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려면 집중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③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 ④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 ⑤ 조기 교육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NOTE

출처 2024.9.20

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fident is not the same as comfortable.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becoming self-confident is that it means living fearlessly. The key to building confidence is quite the opposite. It means we are willing to let fear be present as we do the things that matter to us.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it feels good. We want to stay there and hold on to it. But if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 then confidence never expands beyond that. If we only do the things we know we can do well, fear of the new and unknown tends to grow. Building confidence inevitably demands that we make friends with vulnerability because it is the only way to be without confidence for a while. But the only way confidence can grow is when we are willing to be without it. When we can step into fear and sit with the unknown, it is the courage of doing so that builds confidence from the ground up.

* vulnerability: 취약성

- ①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 있는 일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 ②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 ③ 어려운 일을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 ④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자신 있게 대처해야 한다.

NOTE

출처 2022.수능.20

4.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most common mistakes made by organizations when they first consider experimenting with social media is that they focus too much on social media tools and platforms and not enough on their business objectives. The reality of success in the social web for businesses is that creating a social media program begins not with insight into the latest social media tools and channels but wit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s own goals and objectives. A social media program is not merely the fulfillment of a vague need to manage a "presence" on popular social networks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Being in social media" serves no purpose in and of itself. In order to serve any purpose at all, a social media presence must either solve a problem for the organization and its customers or result in an improvement of some sort (preferably a measurable one). In all things, purpose drives success. The world of social media is no different.

- ①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소셜 미디어를 직접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②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 ③ 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 목표를 토대로 해야 한다.
- ④ 소셜 미디어로 제품을 홍보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⑤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NOTE

출처 2023.수능.22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Urban delivery vehicles can be adapted to better suit the density of urban distribution, which often involves smaller vehicles such as vans, including bicycles. The latter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a preferred ‘last-mile’ vehicle, particularly in high-density and congested areas. In locations where bicycle use is high, such as the Netherlands, delivery bicycles are also used to carry personal cargo (e.g. groceries). Due to their low acquisition and maintenance costs, cargo bicycles convey much potential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ike, such as the *becak* (a three-wheeled bicycle) in Indonesia. Services using electrically assisted delivery tricycl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France and are gradually being adopted across Europe for services as varied as parcel and catering deliveries. Using bicycles as cargo vehicles is particularly encouraged when combined with policies that restrict motor vehicle access to specific areas of a city, such as downtown or commercial districts, or with the extension of dedicated bike lanes.

- ① 도시에서 자전거는 효율적인 배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자전거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다.
- ③ 자전거는 배송 수단으로의 경제적 장단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
- ④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개발되고 있다.
- ⑤ 세계 각국에서는 전기 자전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NOTE

출처 2024.6.22

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it comes to the Internet, it just pays to be a little paranoid (but not a lot). Given the level of anonymity with all that resides on the Internet, it's sensible to question the validity of any data that you may receive. Typically it's to our natural instinct when we meet someone coming down a sidewalk to place yourself in some manner of protective position, especially when they introduce themselves as having known you, much to your surprise. By design, we set up challenges in which the individual must validate how they know us by presenting scenarios, names or acquaintances, or evidence by which to validate (that is, photographs). Once we have received that information and it has gone through a cognitive validation, we accept that person as more trustworthy. All this happens in a matter of minutes but is a natural defense mechanism that we perform in the real world. However, in the virtual world, we have a tendency to be less defensive, as there appears to be no physical threat to our well-being.

* paranoid: 편집성의 ** anonymity: 익명

- ① 가상 세계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기도 한다.
- ②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기술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③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 달리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 ④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 ⑤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가상 세계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이 중요하다.

NOTE

출처 2024.9.22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eed to assimilate values and lifestyle of the host culture has become a growing conflict. Multiculturalists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model of partial assimilation in which immigrants retain some of their customs, beliefs, and language. There is pressure to conform rather than to maintain their cultural identities, however, and these conflicts are greatly determined by the community to which one migrates. These experiences are not new; many Europeans experienced exclusion and poverty during the first two waves of immigration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Eventually, these immigrants transformed this country with significant changes that included enlightenment and acceptance of diversity. People of color, however, continue to struggle for acceptance. Once again, the challenge is to recognize that other cultures think and act differently and that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Perhaps,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immigrants will no longer be strangers among us.

- ①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이 필요하다.
- ② 이민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 ③ 이민자는 미래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다문화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 ⑤ 문화적 동화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NOTE

출처 2022.수능.22

4.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nvironmental hazards include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ones,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s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difficult to avoid (the breathing of polluted air, the drinking of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noise in open public spaces); in these circumstances, exposure is largely involuntary.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may require societal action, such as public awareness and public health measures.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is felt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than tho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 water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or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s, outrages people more tha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These factors are important when one considers how change (risk reduction) happens.

* contaminate: 오염시키다 ** egregious: 매우 나쁜

- ①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
- ④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 ⑤ 대기오염 문제는 인접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NOTE

출처 2023.수능.23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as opposed to more aggressive forms of regulation, is its flexibility and respect for the operation of free markets. Regulatory mandates are blunt swords; they tend to neglect diversity and may have serious unintended adverse effects. For example,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may produce goods that work less well or that have characteristics that consumers do not want. Information provision, by contrast, respects freedom of choice. If automobile manufacturers are required to measure and publicize the safety characteristics of cars, potential car purchasers can trade safety concerns against other attributes, such as price and styling. If restaurant customers are informed of the calories in their meals, those who want to lose weight can make use of the information, leaving those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 unaffected. Disclosure does not interfere with, and should even promote, the autonomy (and quality) of individual decision-making.

* mandate: 명령 ** adverse: 거스르는 *** autonomy: 자율성

- ① steps to make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to customers
- ② benefits of publicizing information to ensure free choices
- ③ strategies for companies to increase profits in a free market
- ④ necessities of identifying and analyzing current industry trends
- ⑤ effects of diversified markets on reasonable customer choices

NOTE

출처 2024.6.23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There are pressures *within* the museum that cause it to emphasise what happens in the galleries over the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 its unseen zones. In an era when museums are forced to increase their earnings, they often focus their energies on modernising their galleries or mounting temporary exhibitions to bring more and more audiences through the door. In other words, as museums struggle to survive in a competitive economy, their budgets often prioritise those parts of themselves that are consumable: infotainment in the galleries, goods and services in the cafes and the shops. The unlit, unglamorous storerooms, if they are ever discussed, are at best presented as service areas that process objects for the exhibition halls. And at worst, as museums pour more and more resources into their publicly visible faces, the spaces of storage may even suffer, their modernisation being kept on hold or being given less and less space to house the expanding collections and serve their complex conservation needs.

- ① importance of prioritising museums' exhibition spaces
- ② benefits of diverse activities in museums for audiences
- ③ necessity of expanding storerooms for displaying objects
- ④ consequences of profit-oriented management of museums
- ⑤ ways to increase museums' commitment to the public good

NOTE

출처 2024.9.23

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rimary purpose of commercial music radio broadcasting is to deliver an audience to a group of advertisers and sponsors. To achieve commercial success, that audience must be as large as possible. More than any other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ic or psychographic profile, purchasing power, level of interest, degree of satisfaction, quality of attention or emotional state), the quantity of an audience aggregated as a mass is the most significant metric for broadcasters seeking to make music radio for profitable ends. As a result, broadcasters attempt to maximise their audience size by playing music that is popular, or — at the very least — music that can be relied upon not to cause audiences to switch off their radio or change the station. Audience retention is a key value (if not the key value) for many music programmers and for radio station management. In consequence, a high degree of risk aversion frequently marks out the ‘successful’ radio music programmer. Playlists are restricted, and often very small.

* aggregate: 모으다 ** aversion: 싫어함

- ① features of music playlists appealing to international audiences
- ② influence of advertisers on radio audiences’ musical preferences
- ③ difficulties of increasing audience size in radio music programmes
- ④ necessity of satisfying listeners’ diverse needs in the radio business
- ⑤ outcome of music radio businesses’ attempts to attract large audiences

NOTE

출처 2022.수능.23

4.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cientists *use* paradigms rather than believing them. The use of a paradigm in research typically addresses related problems by employing shared concepts, symbolic expressions,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s,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in scientists’ beliefs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Indeed,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without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or what they believe about it. Thomas Kuhn noted that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without agreeing on, or even attempting to produce,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will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 ① difficulty in drawing novel theories from existing paradigms
- ② significant influence of personal beliefs in scientific fields
- ③ key factors that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s
- ④ roles of a paradigm in grouping like-minded researchers
- ⑤ functional aspects of a paradigm in scientific research

NOTE

출처 2023.수능.24

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Different parts of the brain's visual system get information on a need-to-know basis. Cells that help your hand muscles reach out to an object need to know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object, but they don't need to know about color. They need to know a little about shape, but not in great detail. Cells that help you recognize people's faces need to be extremely sensitive to details of shape, but they can pay less attention to location.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anyone who sees an object sees everything about it — the shape, color, location, and movement. However, one part of your brain sees its shape, another sees color, another detects location, and another perceives movement. Consequently, after localized brain damage, it is possible to see certain aspects of an object and not others. Centuries ago, people found it difficult to imagine how someone could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at color it is. Even today,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to learn about people who see an object without seeing where it is, or see it without seeing whether it is moving.

- ① Visual Systems Never Betray Our Trust!
- ② Secret Missions of Color-Sensitive Brain Cells
- ③ Blind Spots: What Is Still Unknown About the Brain
- ④ Why Brain Cells Exemplify Nature's Recovery Process
- ⑤ Separate and Independent: Brain Cells' Visual Perceptions

NOTE

출처 2024.6.24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Hyper-mobility — the notion that more travel at faster speeds covering longer distances generates greater economic success — seems to be a distinguishing feature of urban areas, where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currently reside. By 2005, approximately 7.5 billion trips were made each day in cities worldwide. In 2050, there may be three to four times as many passenger-kilometres travelled as in the year 2000, infrastructure and energy prices permitting. Freight movement could also rise more than threefold during the same period. Mobility flows have become a key dynamic of urbanization, with the associated infrastructure invariably constituting the backbone of urban form. Yet, despite the increasing level of urban mobility worldwide, access to places, activities and services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Not only is it less convenient — in terms of time, cost and comfort — to access locations in cities, but the very process of moving around in cities generates a number of negative externalities. Accordingly, many of the world's cities face an unprecedented accessibility crisis, and are characterized by unsustainable mobility systems.

* freight: 화물

- ① Is Hyper-mobility Always Good for Cities?
- ② Accessibility: A Guide to a Web of Urban Areas
- ③ A Long and Winding Road to Economic Success
- ④ Inevitable Regional Conflicts from Hyper-mobility
- ⑤ Infrastructure: An Essential Element of Hyper-mobility

NOTE

출처 2024.9.24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Before the web, newspaper archives were largely the musty domain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journalism students. Journalism was, by definition, current.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has greatly extended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with older stories now regularly cited to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With regard to how meaning is made of complex issues encountered in the news, this departure can be understood as a readiness by online news consumers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s and contexts of the news that was not apparent in, or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s.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determined in part by the dep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 seems to b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news stories as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rather than short-lived and unconnected media spectacles.

* archive: 기록 보관소 ** musty: 곰팡내 나는
*** manifest: 분명한

- ① Web-based Journalism: Lasting Longer and Contextually Wider
- ② With the Latest Content, Online News Beats Daily Newspapers!
- ③ How Online Media Journalists Reveal Hidden Stories Behind News
- ④ Let's Begin a Journey to the Past with Printed Newspapers!
- ⑤ Present and Future of Journalism in the Web World

NOTE

출처 2022.수능.24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ending and restoring objects often require even more creativity than original production. The preindustrial blacksmith made things to order for people in his immediate community;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ying or transforming it according to the user, was routine.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repair was thus an extension of fabrication.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making things became the province of machine tenders with limited knowledge.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r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an understanding of the whole and a comprehension of the designer's intentions. "Manufacturers all work by machinery or by vast subdivision of labour and not, so to speak, by hand," an 1896 *Manual of Mending and Repairing* explained. "But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or of a gun by machinery, but the machine cannot mend it when broken, much less a clock or a pistol!"

- ① Still Left to the Modern Blacksmith: The Art of Repair
- ② A Historical Survey of How Repairing Skills Evolved
- ③ How to Be a Creative Repairperson: Tips and Ideas
- ④ A Process of Repair: Create, Modify, Transform!
- ⑤ Can Industrialization Mend Our Broken Past?

NOTE

출처 2023.수능.21

1. 밑줄 친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in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subjectivity, at the heart of which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which allowed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Diaries were central media through which enlightened and free subjects could be constructed. They provided a space where one could write daily about her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disparate entries, events, and happenstances could be rendered into insights and narratives about the self, and allowed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s. Diaries were personal and private; one would write for oneself, or, in Habermas’s formulation,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By making the self public in a private sphere, the self also became an object for self-inspection and self-critique.

* disparate: 이질적인 ** render: 만들다

- ① use writing as a means of reflecting on oneself
- ② build one’s identity by reading others’ diaries
- ③ exchange feedback in the process of writing
- ④ create an alternate ego to present to others
- ⑤ develop topics for writing about selfhood

NOTE

출처 2024.6.21

2. 밑줄 친 a stick in the bundl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Lawyers sometimes describe ownership as a *bundle of sticks*. This metaphor was introduced about a century ago, and it has dramatically transformed the teaching and practice of law. The metaphor is useful because it helps us see ownership as a grouping of interpersonal rights that can be separated and put back together. When you say *It’s mine* in reference to a resource, often that means you own a lot of the sticks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the sell stick, the rent stick, the right to mortgage, license, give away, even destroy the thing. Often, though, we split the sticks up, as for a piece of land: there may be a landowner, a bank with a mortgage, a tenant with a lease, a plumber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an oil company with mineral rights. Each of these parties owns a stick in the bundle.

* mortgage: 저당잡히다 ** tenant: 임차인

- ① a legal obligation to develop the resource
- ② a priority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
- ③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
- ④ a building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 ⑤ a piece of land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NOTE

출처 2024.9.21

3. 밑줄 친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Gold plating in the project means needlessly enhancing the expected results, namely, add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ostly, not required, and that have low added value with respect to the targets — in other words,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Gold plating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as it is typical of projects with a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 — in other words, projects that involve specialists with proven experience and extensive professional autonomy. In these environments specialists often see the project as an opportunity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s. There is therefore a strong temptation, in all good faith, to engage in gold plating, namely, to achieve more or higher-quality work that gratifies the professional but does not add value to the client’s requests, and at the same time removes valuable resources from the project. As the saying goes,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 autonomy: 자율성 ** gratify: 만족시키다

- ① Pursuing perfection at work causes conflicts among team members.
- ② Raising work quality only to prove oneself is not desirable.
- ③ Inviting overqualified specialists to a project leads to bad ends.
- ④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is unnecessary.
- ⑤ Acquiring a range of skills for a project does not ensure success.

NOTE

출처 2022.수능.21

4. 밑줄 친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cientists have no special purchase on moral or ethical decisions; a climate scientist is no more qualified to comment on health care reform than a physicist is to judge the causes of bee colony collapse. The very features that create expertise in a specialized domain lead to ignorance in many others. In some cases lay people — farmers, fishermen, patients, native peoples — may have relevant experiences t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Indeed, in recent years, scientists have begun to recognize this: the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includes observations gathered from local native groups. So our trust needs to be limited, and focused. It needs to be very *particular*. Blind trust will get us into at least as much trouble as no trust at all. But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s — the men and women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orting out tough questions about the natural world we live in — we are paralyzed, in effect not knowing whether to make ready for the morning commute or not.

* lay: 전문가가 아닌 ** paralyze: 마비시키다
*** commute: 통근

- ① questionable facts that have been popularized by non-experts
- ②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s
- ③ common knowledge that hardly influences crucial decisions
- ④ practical information produced by both specialists and lay people
- ⑤ biased knowledge that is widespread in the local community

NOTE

출처 2023.9.23

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s of “payoff” information. They may observe their own or neighbors’ farms, but it is the empirical results they are using as a guide, not the neighbors themselves.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and assessing such factors as relative advantage,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s, difficulty of use, and “trialability” — how well can it be experimented with. But that criterion of “trialability”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but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of professional test plots in research facilities. Farmers also often confront complex and difficult-to-observe phenomena that would be hard to manage even if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Moreover farmers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on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which makes the criterion of “relative advantage” hard to measure.

* empirical: 경험적인 ** compatibility: 양립성
*** criterion: 기준

- ① limitations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s in farming
- ② challenges in modernizing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 ③ necessity of prioritizing trialability in agricultural innovation
- ④ importance of making instinctive decisions in agriculture
- ⑤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NOTE

출처 2022.9.24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world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that has introduced a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With this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urban institutions of government have evolved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provided through a taxation process and/or fee for services (e.g., police and fire, street maintenance, utilities, waste management, etc.). Frequently this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 Money for services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 is slowly being supplanted by government being the substitute provider. Consequentially, there is a philosophical and social change in attitud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our urban-based society to become involved. The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responsibility of all citizens to be active participants is therefore diminishing. Governmental substitution for citizen duty and involvement can have serious implications. This impedes the nations of the world to be responsive to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as part of global preparedness.

* supplant: 대신하다 ** impede: 방해하다

- ① A Sound Citizen Responsibility in a Sound Government
- ② Always Better than Nothing: The Roles of Modern Government
- ③ Decreased Citizen Involvement: A Cost of Governmental Services
- ④ Why Does Global Citizenship Matter in Contemporary Society?
- ⑤ How to Maximize Public Benefits of Urban-Based Society

NOTE

출처 2023.6.24

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approach, *joint cognitive systems*, treats a robot as part of a human-machine team where the intelligence is synergistic,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The team consists of at least one robot and one human and is often called a *mixed team* because it is a mixture of human and robot agents. Self-driving cars,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is an example of a joint cognitive system. Entertainment robots are examples of mixed teams as are robots for telecommuting. The design process concentrates on how the agents will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Rather than treating robots as peer agents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joint cognitive systems approaches treat robots as helpers such as service animals or sheep dogs. In joint cognitive system design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long with human-robot interaction principles to create robots that can be intelligent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 ① Better Together: Human and Machine Collaboration
- ② Can Robots Join Forces to Outperform Human Teams?
- ③ Loss of Humanity in the Human and Machine Conflict
- ④ Power Off: When and How to Say No to Robot Partners
- ⑤ Shifting from Service Animals to Robot Assistants of Humans

NOTE

출처 2023.9.24

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t only musicians and psychologists, but also committed music enthusiasts and experts often voice the opinion that the beauty of music lies in an expressive deviation from the exactly defined score. Concert performances become interesting and gain in attraction from the fact that they go far beyond the information printed in the score. In his early studies on musical performance, Carl Seashore discovered that musicians only rarely play two equal notes in exactly the same way. Within the same metric structure, there is a wide potential of variations in tempo, volume, tonal quality and intonation. Such variation is based on the composition but diverges from it individually. We generally call this ‘expressivity’. This explains why we do not lose interest when we hear different artists perform the same piece of music. It also explains why it is worthwhile for following generations to repeat the same repertoire. New, inspiring interpretations help u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which serves to enrich and animate the music scene.

* deviation: 벗어남

- ① How to Build a Successful Career in Music Criticism
- ② Never the Same: The Value of Variation in Music Performance
- ③ The Importance of Personal Expression in Music Therapy
- ④ Keep Your Cool: Overcoming Stage Fright When Playing Music
- ⑤ What’s New in the Classical Music Industry?

NOTE

출처 2023.9.21

1. 밑줄 친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about an algorithm deciding what you might like. Could it mean that, if computers conclude you won't like something,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Personally, I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new music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I can quickly get stuck in a rut where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That's why I've always enjoyed the radio. But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are perfectly suited to finding gems that I'll like. My worry originally about such algorithms was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into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leaving others lacking listeners.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s? But thanks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usually behind them, this doesn't happen. A small divergence in my likes compared to yours can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 rut: 관습, 틀 ** gem: 보석 *** divergence: 갈라짐

- ① lead us to music selected to suit our respective tastes
- ② enable us to build connections with other listeners
- ③ encourage us to request frequent updates for algorithms
- ④ motivate us to search for talented but unknown musicians
- ⑤ make us ignore our preferences for particular music genres

NOTE

출처 2023.6.21

2. 밑줄 친 “view from nowhe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Our view of the world is not given to us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it is shaped by our mental abilities,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This is not to say that there is no reality outside our minds or that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It is to say that our version of reality is precisely that: *our* version, not *the* version. There is no single, universal or authoritative version that makes sense, other than as a theoretical construct. We can see the world only as it appears to us, not “as it truly is,” because there is no “as it truly is” without a perspective to give it form. Philosopher Thomas Nagel argued that there is no “view from nowhere,” since we cannot see the world except from a particular perspective, and that perspective influences what we see. We can experience the world only through the human lenses that make it intelligible to us.

* illusion: 환영

- ①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
- ② valuable perspective most people have in mind
- ③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 ④ critical insight that defeats our prejudices
- ⑤ unbiased and objective view of the world

NOTE

출처 2022.6.21

3. 밑줄 친 an empty in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reactive work second. This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Making this switch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 It wasn't easy, and it still isn't,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By definition,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 even for an hour.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Otherwise,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 ①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
- ②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 ③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s
- ④ removing social ties to maintain a mental balance
- ⑤ secur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

NOTE

출처 2021.9.21

4. 밑줄 친 don't knock the box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 you prepare for the few most likely scenarios so that you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re happening. It's therefore not a surprise when a restaurant server offers you a menu. When she brings you a glass with a clear fluid in it, you don't have to ask if it's water. After you eat, you don't have to figure out why you aren't hungry anymore.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and are therefore not problems to solve. Furthermore, imagine how demanding it would be to always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s with which you interact. *Should I use my hammer or my telephone to pound in that nail?* On a daily basis, functional fixedness is a relief, not a curse. That's why you shouldn't even attempt to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ies. You can't. If you tried to, then you'd never get anything done. So don't knock the box. Ironically, although it limits your thinking, it also makes you smart. It helps you to stay one step ahead of reality.

- ① Deal with a matter based on your habitual expectations.
- ② Question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
- ③ Replace predetermined routines with fresh ones.
- ④ Think over all possible outcomes of a given situation.
- ⑤ Extend all the boundaries that guide your thinking to insight.

NOTE